

노년 혹은 인생의 무게와 깊이라는 날개를 단 어린이책

‘홀짝이’는 내 인형이다. 아이들에게는 물론 엄마 인형이다.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의 가방 속에 키가 두 뼘 정도 되는 쥐 인형이 들어 있었다. 흐린 밤색 털에, 셔츠와 멜빵 달린 청바지를 입고 있어 전혀 쥐 같지 않았지만 얼굴은 쥐가 분명했다. 남편이 뭐라고 말하면서 인형을 건네주었는지는 전혀 기억에 없고, 다만 내 띠에 맞춰 샀나 보다 하는 생각만 남아 있다.

어찌나 낡았는지 때가 꼬질꼬질하고 목은 끊어질 듯 말 듯 흔들흔들이다. 거기다가 옷은 다 어디로 갔는지 흰 몸뚱이가 드러나서 꼭 옛날 남자 내복을 입은 것 같다. 아이들 인형 바구니에 들어 있던 쥐 인형이 언제부터 ‘내 인형’ ‘엄마 인형’이 된 것일까. 특별히 예쁜 것도 아니고, 별난 사연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곰곰 생각해 보니 작은 아이에게서 ‘홀짝이’라는 이름을 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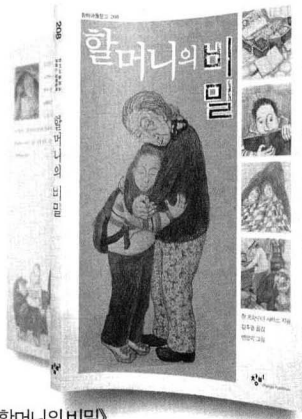
고부터였던 것 같다. 머리가 흔들흔들하는 것을 보며 왜 홀짝거리 는 것이라 생각했는지, 아이는 그 이름을 지어준 오래전의 자기 속 내를 기억하지 못한다.

《안녕, 사바나》의 소나무는 할머니와 사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이로 친구들은 모두 ‘소나무’라고 부른다. 어린이날에는 햄버거 가게에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이미 알고 있는, 다음날 학교에 가면 어린이날 있었던 일을 발표시키거나 글로 쓰게 하는 것이 미치도록 싫고, 부모가 다 있는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어버이날 숙제가 하기 힘들어 지긋지긋한 ‘가정의 달’ 5월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아이이다. 동네에 새로 동물원이 생기면서 아기 원숭이를 만나게 되는데, 원숭이의 고향을 따 ‘사바나’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동물원을 탈출한 사바나가 ‘엄마를 찾으러 나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나무, 그 앞에 사바나가 나타나고 나무는 생전 처음 엄마 이야기를 한다.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나도 엄마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고. 결국 사바나는 잡혀 동물원으로 돌아가고, ‘딱 한 번’ 허락된 엄마를 만난 날 나무는 엄마와 함께 사바나를 만나러 간다.

“너 때문에 살지.” 나무의 할머니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신다. 어린 손자 때문에 할머니는 아플 새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 나무가 아기 원숭이에게 사바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을 때 그 둘은 특별한 사이가 되었지만, 할머니는 이름이 없어도 이미 나무와 단단히 묶여 있다.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두 사람은 얼굴이 없어도 이름이 없어도 행복하다. 남은 인생 전부를 나무에게 바친 할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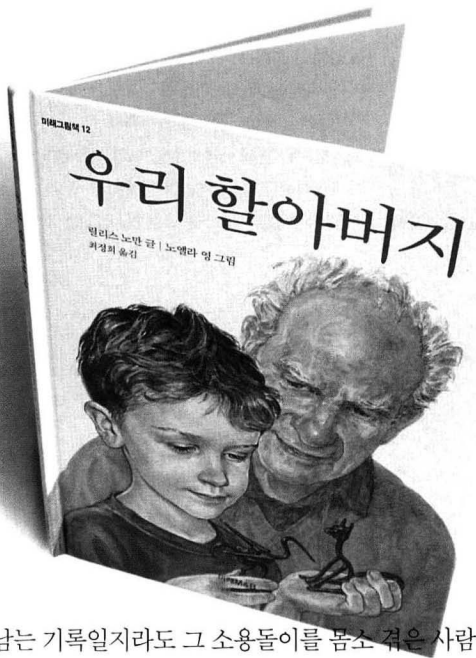
《안녕, 사바나》명창순 지음 | 백남원 그림 | 소년한길 | 158쪽 | 값 7,000원



《할머니의 비밀》

장 프랑수아 사비스 지음 | 변영미 그림 | 김주열 옮김 | 창비 | 196쪽 | 값 6,000원

《우리 할아버지》
릴리스 노만 글 | 노엘라 영 그림 | 최정희 옮김
| 미래M&B | 30쪽 | 값 8,000원



가 계시기에 나무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너무 일찍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참으로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덕분에 엄마를 만나고 돌아설 때 울지 않을 수 있었다. 엄마도 엄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하니깐. 할머니는 그것을 말이 아닌 삶으로 가르쳐주셨다.

《할머니의 비밀》의 열두 살 남자 아이 미키는 “너희 집에서 살다 죽어야겠다”며 갑자기 쳐들어온 증조 할머니를 ‘고약하고 심술궂은 미친 노파’라고 생각한다. 페이스 할머니와 한 방을 쓰게 된 미키는 산책길에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내심 바랄 정도였지만, 차츰 변해간다. 바로 할머니의 일기장 때문이다. 오래전 미국의 금주령 시대에 열두 살이었던 할머니는 아버지가 밀주업자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어머니는 그 일을 알면서도 거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버지가 개입한 살인 현장을 목격했던 것. 할머니의 비밀을 하나씩 알게 되면서 어느덧 할머니를 좋아하게 된 미키는, 석달 동안 머물다 떠난 할머니가 그리워 돈을 모아 할머니를 찾아가고 그 곳에서 못다 읽은 할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읽는다. 그런데 할머니는 처음부터 증손자 미키가 자신의 일기장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할머니의 일기장 속 비밀의 문을 먼저 열고 들어간 것은 어린 미키였지만, 그것을 말없이 지켜보며 기다린 것은 할머니였다. 어린 영혼과 나이로 무르익은 영혼이 함께 나누는 은밀하고도 섬세한 인생의 결은, 할머니와 손자의 사적私的 만남을 넘어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의 소통으로 확대할 수 있어 흥미롭다. 책에는 단

한 줄로 남는 기록일지라도 그 소용돌이를 몸소 겪은 사람을 만나는 순간 우리들의 삶은 역사성을 지니며, 그 역사의 문을 여는 열쇠는 노년 세대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할아버지》는 ‘지난 토요일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로 시작한다. 평생 시골에서 일만 하며 사시던 할아버지가 도시에 있는 아들네로 오셔서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신다. 짧은 그림책의 길이만큼 실제 할아버지의 도시 생활도 그리 길지는 않았을 것 같다. 할아버지께 방을 빼앗기고 다락방에서 자게 된 손자, 아버님 입맛에 맞춰 식사 준비를 해야 하고 담뱃재로 집안이 지저분해지는 것이 싫은 며느리, 아버지의 반복되는 지난 시절 이야기에 식구들 눈치를 보는 아들. 호주의 작가가 쓰고 그렸는데, 이 땅의 부모님들과 어쩔 이리도 똑같은지….

초등학생 손자는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자잘한 물건들을 보며 할아버지가 자신의 방에 좀더 오래 계셨어도 좋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미 할아버지는 떠나고 안 계신다. 마음 편치 않은 도시 생활에도 할아버지는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고 표정 또한 담담하다. 손자는 머지않아 할아버지의 이름도 얼굴도 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뛰어난 손재주로 고장난 장난감을 고쳐주고 작은 물건들을 만들어주던 할아버지의 손길만은 아마도 오래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만남이 없는 곳에서 관계는 짝들 수 없다. 서로 만나지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는 너무도 먼 땅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노년은 더욱 외로우며 어린 아이들은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한 채 어른이 되고 만다. 책방에서 선 채로 읽어도



이 글을 쓴 유경은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화여대 시청각교육과를 졸업했으며 7년간 기독교방송국 아나운서로 일하면서 노인 방송을 통해 노년의 삶을 보기 시작했다. 이후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노인 대상 텔레비전 프로그램 분석>으로

석사 학위를 받으면서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복지과장으로 일했고, 현재는 '어르신사랑연구모임' <<http://cafe.daum.net/gerontology>>을 운영하며 노인대학과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중이다.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와

여성신문에 <유경의 녹색 노년>을 연재하고 있으며, 같은 제목으로 SBS 라디오 '마음은 언제나 청춘', 마산 MBC-FM '가요응접실'에 출연하고 있다. 저서로는 <꽃 진 저 나무 푸르기도 하여라> (서해문집, 2003)가 있다.



《소피의 달빛 담요》
에일린 스피넬리 글 | 제인 다이어 그림 | 김홍숙 옮김 |
파란지전자 | 32쪽 | 값 7,800원

될 만큼 간결한 그림책 속의 할아버지는 이 시대 모든 할아버지들의 초상에 다름 아니다.

《소피의 달빛 담요》의 주인공은 소피라는 이름의 거미이다. 다른 집거미들과는 달리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가지만, 소피가 비단 거미줄에 황금빛 햇살을 섞어 짜는 커튼도 옷도 슬리퍼도 사람들에게는 모두 지저분한 거미줄일 뿐이다. 할머니가 된 소피는 털실 살 돈이 없는 가난한 엄마 옆에서 달빛으로 아기 담요를 짜기 시작한다. 늙고 약한 할머니 거미는 아기가 태어날 시간에 맞추느라 먹지도 자지도 않고 밤의 별빛과 도깨비불, 향기로운 솔잎 이슬 조각, 옛날에 들던 자장가, 장난스런 눈송이를 넣어서 담요를 짜고 또 짠다. 아기는 결국 소피의 가슴도 넣어서 짠 달빛 담요를 덮게 되고, 이 달빛 담요는 소피의 생애 최고의 작품이 된다.

이 책에 거미를 그릴 때 화가는 '육아 거미(학명 : 피사우리나 미라 Pisaurina mira)'에게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육아 거미는 먹이를 잡기 위해서 거미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기 거미를 숨기고 보호하기 위해서만 거미줄을 사용하는 거미라고 한다. 우리들도 날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내 가족을 숨기고 보호하기 위해 거미줄을 만들며 살아간다. 그러나 나와 내 가족만을 위

한 거미줄에 목숨을 건다면 그 얼마나 보잘것없는 생일까. 소피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싫어하고 징그러워하는데도 자기의 재능을 나눠주려고 애를 쓴다. 거절과 내침의 경험도 소피의 그 마음을 가져가지 못했기에, 머리 하얀 할머니 거미가 되어서도 소피는 달빛으로 아기의 담요를 짤 수 있었다.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비움이기에 최고의 노년이다.

'홀썩이'는 이름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 식구이다. 이름은 그 자체로 존재를 증명하기도 하지만 이름만으로 존재의 바닥에 이를 수는 없다. 그러니 노년이라는 이름에 얽매일 일이 아니며, 아이들에게 노년을 생의 일부로 만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삶의 모든 과정은 결코 따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어짐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병든 마음의 시작이다. 어린이책에 노년이 담기니, 책은 인생의 무게와 깊이를 더해 오히려 든든한 날개를 얻는다. 분명 더 잘 날 수 있을 것이다. 노년은 이렇게 날개를 달아주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저 애써 떼어놓으려고만 한다. **추천**

